

BS산업의 현황 및 과제¹⁾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sjung@bok.or.kr

1. BS산업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교역재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던 시기를 지나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등 산업간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조화와 융합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의 서비스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조화와 융합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혁신의 원천으로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연관되는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비즈니스 서비스업(Business Services, 이하 BS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1) 본 원고는 정선영(2013)을 수정·요약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우리나라 생산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201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교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산업인 BS산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가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한 예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²⁾에 해당하는 지식집약적 BS산업(Knowledge Intensive Business Services)은 제조업 등과 연계될 경우, 해당 산업의 기술혁신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과급효과를 가지게 된다.



자료: 정선영(2013)

<그림 1> 지식집약적 BS산업을 통한 기술 혁신 파급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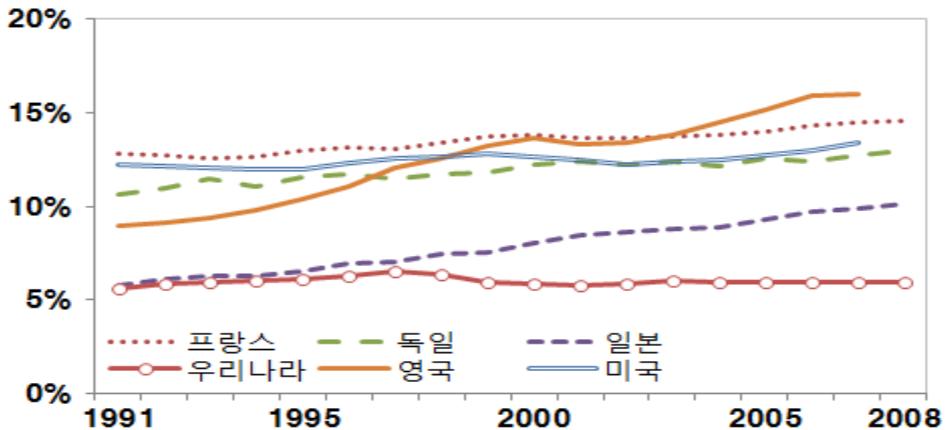
성장의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의 측면에서도 BS산업의 육성은 중요하다. 생산성이 낮고 노동집약적이며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전통적 서비스부문이 쇠퇴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고용 흡수력이 감소하는 반면,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외주화(Outsourcing) 등에 힘입은 BS산업 부문의 고용 흡수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BS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식집약적 BS산업과 같은 지식서비스 부문은 고학력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고급일자리 창출과 고학력 취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고용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2)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는 컴퓨터시스템·프로그램 개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처리, 연구개발, 법률·회계·감사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광고·디자인·마케팅 서비스,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이 포함되며, 자본이나 중간재보다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생산의 주요 투입요소로 작용한다.

2. 우리나라 BS산업 현황과 문제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에서 BS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BS산업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D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70년 0.9%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5.4%로 높아졌고,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70년 2.0%에서 2012년 9.3%로 확대되었다. 또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역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BS산업의 사업체 수는 1993년 전체산업대비 1.8%에서 2011년 3.4%로, 종사자 수는 1993년 2.9%에서 2011년 9.0%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BS산업의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BS산업이 전체 GDP 중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인 데 반해, 프랑스, 미국, 독일 등은 1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영국은 15%를 상회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우 BS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 이후로 BS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BS산업의 서비스업 대비 비중을 살펴보아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20%에 가까운 비중을 나타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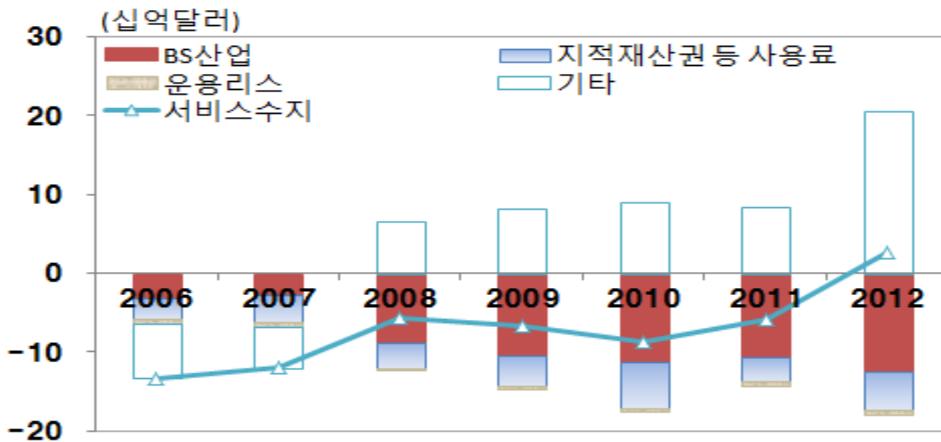


자료: OECD STAN DB

주: 실질 GDP 기준 비중임

<그림 2> 국가별 BS산업의 비중(전산업 대비)

우리나라 BS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는 국제수지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수출의 호조로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수지가 적자인 요인으로는 여행수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 및 비즈니스 서비스 수지의 적자 급증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중 고부가가치 중심의 BS산업에 해당하는 수지 적자는 2006년(30억 8,350만 달러)과 2012년(124억 6,250만 달러) 사이에 4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비즈니스 서비스 수지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광고, 시장조사, 여론조사서비스수지와 기타서비스업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홍보서비스수지 역시 꾸준히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수지 역시 지속적인 적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해당부문의 아웃소싱을 주로 국가가 아닌 외부업체를 통해 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현상은 국내 BS산업 부문의 대외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BS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키운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해당 부문을 육성하고 소비할 만한 잠재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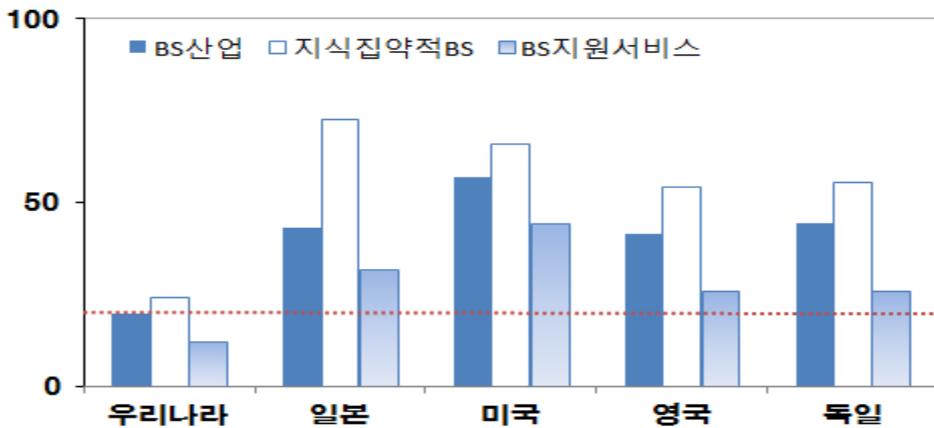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주: 국제수지 세분류 중 컴퓨터서비스수지, 유자·보수 서비스수지, 기타 사업기술 전문서비스수지를 합한 값을 BS산업으로 재분류

<그림 3> 서비스수지의 구성(단위: 십억달러)

한편 BS산업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국제적 수준에 비해 크게 낮고 기업의 규모나 기술 혁신 측면에서 미흡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BS산업의 성장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낮고 정체되어 있는데 이는 BS산업의 저생산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우 BS산업의 생산성이 높아 제조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산업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선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BS산업의 생산성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BS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는데 이는 지식집약적 BS산업과 BS지원서비스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시간에 따른 변동 추이를 보더라도 선진국의 경우 지식집약적 BS산업의 노동생산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나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룬다.



자료: EUKLEMS

주: 1. 1995년 가격기준, PPP환율 적용

2.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수 기준

<그림 4> 2005년 BS산업 부문별 노동생산성(단위: 천US달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BS산업 활용도 역시 선진국에 비해 낮다. 먼저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 중간투입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13%에서 2009년 14%로 큰 차이가 없고, BS산업 중간투입 비중은 1990년 2%에서 2009년 5%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중간투입 비율이 낮은 것은 기업의 외주 관행과 연관성이 높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기업이 국내에 있는 서비스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외주를 회피하고, 낮은 외주 비율은 다시 서비스업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저생산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Guerrieri and Meliciani(2004)에 따르면,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전기제품, 통신 장비와 화학제품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중간투입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이러한 산업에 특화된 국가들의 생산자서비스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가전자, 화학 등의 주요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상으로는 생산자서비스, 특히 BS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으므로 BS산업이 제조업과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3. BS산업 생산성 개선 방안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잘 정비되어 있어 서비스 콘텐츠의 상품화가 용이하고 높은 교육수준, 풍부한 인적자원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BS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BS산업의 발전은 정체 상태이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BS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하의 다면적인 정책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여 규모의 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자본과 규모 측면에서 영세한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 요소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분야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홍보나 마케팅,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외국계 혹은 대형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등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정종인 외, 2007). 기존 연구³⁾에 따르면 규모 확충을 통한 생산성 개선 효과는 IT서비스업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IT서비스업 외의 타 BS산업 부문에서도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3) 정선영(2013)

다음으로 우수 인력 유치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적자본은 지식이 체화된 전문 인력으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하므로 전문성과 서비스마인드를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이를 위해 BS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거나 인력양성 교육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형태의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법률·회계·광고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BS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에 비해 자본축적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자본과 같은 물적 요소의 확대를 통해 자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인적자본 확충과 기업규모의 확충과 더불어 자본집약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자본 유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4. 서울시 BS산업 정책

BS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BS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집중형 산업의 한 부문으로 BS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2009년 서울BS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 지역의 BS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은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제조업 기반은 약화된 반면 서비스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BS기업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질적 수준은 국제 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BS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BS산업지원센터는 다양한 BS산업 부문 중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조사업, 컨설팅업, 엔지니어링업, 광고업 등 4대 BS업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BS산업 육성을 위해 크게 BS산업 종사자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과 BS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⁴⁾. 전자에 해당하는 정책에는 BS산업 전문 인력 양성, BS산업 인프라 운영 및 전문 콘텐츠 제

4) 서울특별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백서(2013) 참조.

공, BS산업 분야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제품-서비스 R&D 지원 등이 있으며 BS기업의 내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컨설팅 지원, 성공 창업 리서치 지원, BS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등이 있으며 BS의 시장 수요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BS 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서울시는 정책적 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 BS허브 인터넷포털을 개설하였는데, 여기에는 분야별로 분산된 BS 분야별 지원사업 정보, 전문자료, 기업DB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BS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BS허브포털의 제공정보는 크게 지원사업 정보, 전문정보, BS기업정보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지원사업 정보란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BS지원사업과 참여기업의 실적정보를, 전문정보에서는 국내/해외동향 보고서, 지식인 스콜라, 교육/세미나 자료를, BS기업 DB에서는 서울시 약 만여 개의 BS기업 정보를 포괄하여 분야별 검색이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서울시는 BS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BS산업을 육성하는 일련의 노력과 효과는 자연스럽게 제조업 등 BS 수요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BS산업을 육성하는 해당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유희유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시 경제 전반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단, 앞서 언급하였듯이, BS산업의 발전이 서울시 경제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수요창출 지원, 기업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강조할 것은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종인 BS산업은 인적 자원의 총량과 질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및 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우수한 인적 자원이 BS산업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정선영(2013), “우리나라 생산자 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26(4), 1659-1690.
- 정종안·박장호·김영민(2007),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은조사연구 2007-15, 한국은행.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 통계청(2005), 서비스업총조사.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한국은행, 국제수지.
- EUKLEMS DB.
- Guerrieri, P. and V. Meliciani(2004),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oducer Services,” mimeo.
- OECD, STAN DB.